

#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

김기섭 · 장익영  
경희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within Peer Group

Ki-Sup Kim·Ik Young Chang  
Kyung Hee University·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6년 05월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남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50명의 학생을 집락무선 표집방법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조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진 무성의한 자료 18부를 제외한 총 232부의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만족,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 그리고 교육적 만족은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또래집단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긍정적 자아개념에 중요한 변인이지만 스포츠활동 만족도가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청소년 또래집단 내 긍정적 자아개념은 훨씬 더 향상되어진다.

**주제어** : 커뮤니케이션 능력, 긍정적 자아개념, 스포츠활동 만족도, 조절효과, 청소년, 또래집단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within peer group.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tracted 250 samples from five boys high schools in Gyeonggi-do, and used survey of 232 students for actual analysis excluding the surveys with unfaithful answer or double entry. Questionnaire was used as a tool for collecting data and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or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sub-factors of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as social, physical,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have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self-concept with peer group. In other words, communication skills within adolescents' peer group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positive self-concept, but when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put as a moderating variable, adolescents' positive self-concept would be more improved.

**Key Words** : Communication skills, Positive self-concept,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Adolescent, Peer group

Received 26 January 2017, Revised 16 February 2017  
Accepted 20 March 2017, Published 28 March 2017  
Corresponding Author: Ik Young Cha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Email: ikyoungchang@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연구의 필요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라는 명제의 의미는 개인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한다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한다. 즉 인간은 변화무쌍한 사회 환경 안에서 타자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상호학습하며 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무엇보다도 사회 안에서 타자들과 상호작용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언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다시 말하면, 사회적 동물로써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을수록 매력적인 인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거나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개인의 속성이다[4,5].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청소년기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강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1차적 사회화 집단 안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또 다른 사회화 집단 안에서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준비를 한다[6]. 무엇보다도 학교라는 집단 안에서 청소년들은 낯선 또래들과 만나고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년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또래 간에 긍정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또래 간에 신뢰를 높여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적 유대관계의 폭을 확장시킨다[7]. 반면 Canary, Cody & Manusov[8]의 논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일수록 부끄러움, 외로움, 불안 수준이 높고 학습능력이 낮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력과 같은 일탈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권민혁[9]

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원만하지 않을수록 왕따현상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또래 친구들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또래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 즉 ‘자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아는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어떻게 언어로써 표현하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10]. 특히 청소년기에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11]. 사춘기인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개념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 및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및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12]. 유사한 맥락에서 최현주[13]는 또래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자신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또래 관계를 촉진시키며 더 나아가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교우관계, 학업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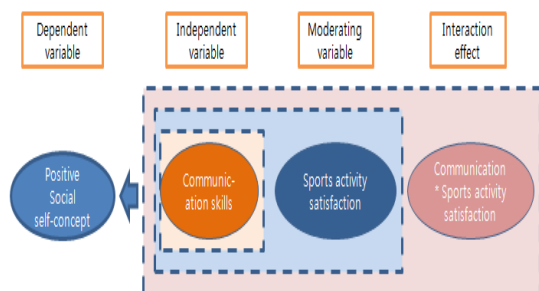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관련 학문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자아개념에서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활동은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자아개념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6,9,16,17]. 대표적으로 구창모[6]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포츠활동은 또래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켜 또래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상호친밀감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권민혁[9]은 스포츠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상황에서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스포츠활동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같은 부정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활동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참가자들은 스포츠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자아개념의 형성에서 있어서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8].

하지만 대부분의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아개념의 선행연구는 스포츠활동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아개념에 스포츠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절 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포츠활동 만족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또래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포츠활동 만족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 변인으로서 스포츠활동 만족을 설정해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의 [Fig. 1]은 청소년의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의 조절효과에 대한 관계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1] The relationship model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05월 20일 경기도에 소재한 남자고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집락무선 표집법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4개 고등학교에서 총 250명을 표집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조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진 무성의한 자료 18부를 제외한 총 232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Valuables	Frequency(#)	Percentage(%)
Year	Year 1(106)	45.7
	Year 2(68)	29.3
	Year 3(58)	25.0
Duration	6months~1year(67)	28.9
	1~3 years(52)	22.4
	Over 3 years(113)	48.7
Frequency	once a week(220)	94.8
	twice a week(4)	1.7
	three times a week(8)	3.4

###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기석[1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척도 14문항 사용하였으며, 모든 설문지의 척도화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단계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인 긍정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우동한[20]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자아개념 4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정한 스포츠참여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찬희[11], 그리고 최재필[21]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스포츠활동 참여 만족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문항을 선정,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4개의 하위영역 사회적 만족 5문항·신체적 만족 4문항·환경적만족 4문항, 교육적 만족 2문항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 연구의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

여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한 박사 3인의 논의를 통하여 설문지 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타당도와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였고 논의된 사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먼저, <Table 2>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1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요인 부하량은 .806-.615로 긍정적 자아개념 역시 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요인 부하량은 .790-.744로 나타나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신뢰도 값은 각각 .935와 .762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로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Communication Skills		Positive Social Self-concept	
item 2	.806	item 2	.790
item 14	.790		
item 11	.789		
item 10	.785	item 3	.768
item 1	.768		
item 3	.757		
item 8	.752		
item 9	.734	item 4	.757
item 4	.729		
item 5	.728		
item 7	.710	item 1	.744
item 12	.686		
item 13	.681		
item 6	.615		
eigenvalue	7.658	eigenvalue	2.341
variance(%)	54.698	variance(%)	58.536
accumulation(%)	54.698	accumulation(%)	58.536
Cronbach'α	.935	Cronbach'α	.762

다음으로 <Table 3>은 스포츠활동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만족,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 그리고 교육적 만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긍정적 만족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846-.473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만족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826-.682, 환경적 만족의 요인 부하량은 .724-.659, 마지막으로 교육적 만족의 요인 부하량은 .834-.766로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919-.812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설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Items	Sports Activity Satisfaction			
	Social	Physical	environmental	Educational
item 1	.846	.214	.132	.026
item 3	.804	.096	.211	.131
item 2	.767	.226	.084	.268
item 4	.473	.213	.108	.210
item 5	.126	.826	.265	.185
item 8	.124	.788	.289	.145
item 6	.231	.705	.089	.231
item 7	-.214	.682	.220	.213
item 10	.116	.220	.724	-.136
item 9	.231	.145	.718	.261
item 11	-.312	.054	.659	.308
item 12	.215	.103	.301	.834
item 13	.136	.098	.103	.766
eigenvalue	3.042	2.691	58.515	2.124
variance(%)	21.725	19.225	17.565	15.172
accumulation(%)	21.725	40.950	2.459	73.687
Cronbach'α	.919	.852	.835	.812

## 2.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표집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한 후 응답 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직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유효 표본만을 코딩지침에 따라 부호화 하였으며 부호화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분석기법은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다른 변수(조절변수)가 개입하여, 독립변수의 직접적 효과가 아닌 또 다른 영향을 야기하는 현상을 '조절효과'라 한다.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조절회귀 분석을 수행하려면 '독립변수-조절변수'가 연계된 변수인 '상호작용변수'를 별도의 연산을 통해 먼저 만든 후,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독립변수×조절변수)를 순서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R<sup>2</sup>값의 변화량을 살펴 조절효과를 검증한다[22].

### 3. 결과

####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4>는 청소년의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r)는 .646에서 .381이었으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으며, 또한 모든 변수에서 상관계수 값이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23].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communication	1					
self-concept	.496**	1				
social	.412**	.495**	1			
physical	.431**	.467**	.646**	1		
environmental	.440**	.466**	.620**	.598**	1	
educational	.381**	.386**	.477**	.514**	.619**	1

\*\*\*P<.001, \*\*P<.01, \*P<.05

#### 3.2 청소년의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

이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절 회귀분석을 통해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 3.2.1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만족도의 조절효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만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atisfaction in sports activity in the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Model	R	R <sup>2</sup>	Sig.	β		
1	.496	.246	.000	.496		
2	.590	.384	.000	.352	.350	
3	.986	.973	.000	.012	-.827	1.568

Model 1 : Communication

Model 2 : Communication, social satisfaction

Model 3 : Communication, social satisfaction, interaction effects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형1인 독립변인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이 .246으로 전체변량의 약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384로 전체변량의 약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3인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973으로 전체변량의 97%를 설명하고 있어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조절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 3.2.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신체적 만족의 조절효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만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형1인 독립변인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이 .246으로 전체변량의 약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325로 전체변량의 약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3인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963으로 전체변량의 96%를 설명하고 있어 스포츠활동의 신체적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physical satisfaction in sports activity in the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Model	R	R <sup>2</sup>	Sig.	β	
1	.496	.246	.000	.496	
2	.570	.325	.000	.363	.310
3	.982	.963	.000	.021	-.936 1.635

Model 1 : Communication

Model 2 : Communication, physical satisfaction

Model 3 : Communication, physical satisfaction, interaction effects

##### 3.2.3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환경적 만족의 조절효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만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형1인 독립변인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이 .246으로 전체변량의 약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322로 전체변량의 약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3인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963으로 전체변량의 96%를 설명하고 있어 스포츠활동의 환경적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 sports activity in the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Model	R	R <sup>2</sup>	Sig.	β	
1	.496	.246	.000	.496	
2	.568	.322	.000	.361	.307
3	.990	.980	.000	.006	-.848 1.574

Model 1 : Communication

Model 2 : Communicati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Model 3 : Communicati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teraction effects

### 3.2.4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교육적 만족의 조절효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육적 만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모형1인 독립변인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이 .246으로 전체변량의 약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292로 전체변량의 약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3인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값은 .963으로 전체변량의 95%를 설명하고 있어 스포츠활동의 교육적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조절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in sports activity in the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positive self-concept

Model	R	R <sup>2</sup>	Sig.	β	
1	.496	.246	.000	.496	
2	.541	.292	.000	.424	.227
3	.967	.953	.000	.031	-1.301 1.880

Model 1 : Communication

Model 2 : Communi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Model 3 : Communi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interaction effects

## 4. 논의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스포츠활동 모든 하위 요인은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에서 큰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 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사회적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또래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며, 무엇보다도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강화되며, 특히 스포츠활동을 통한 사회적 만족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24]. 유사한 측면에서 스포츠활동 중 사회적 만족이 높을수록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11].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참가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래 간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9]. 청소년들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또래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자아를 형성한다[6]. 따라서 스포츠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사회적 만족은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둘째,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신체적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또래집단 내에서 스포츠활동은 신체적 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시기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은 또래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활동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신체적 만족도는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5].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스포츠활동에서 신체적인 만족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긍정적 자아개념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활동을 통한 신체적 만족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환경적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이 아름답고 잘 고안되어졌을 때, 개인들은 더 만족하며, 개인들은 스포츠활동에 더 재미를 느낀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환경은 그들의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재필[21]은 유소년들의 축구클럽활동 시 환경적 요인에 만족할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특정한 환경에서 발현될 때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은 긍정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포츠활동 만족 중 환경적 만족의 조절효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와 스포츠활동 시 환경에 대한 만족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스포츠활동의 교육적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집단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자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규범과 가치관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26]. 무엇보다도 스포츠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회에 대한 욕구등을 충족한다[27]. 특히 스포츠활동 참가를 통한 교육은 청소년문제의 일환인 폭력이나 일탈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12,28,29,3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 또래집단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포츠활동 참가 시 교육적 만족 수준이 높으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절변인으로서 스포츠활동의 교육적 만족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중요한 조절효과를 발현시킴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청소년 또래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결국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절변인임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년 05월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남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2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조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진 무성의한 자료 18부를 제외한 총 232부의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만족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만족은 조절효과가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만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만족은 조절효과가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만족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만족은 조절효과가 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활동 만족의 하위요인인 교육적 만족은 조절효과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또래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포츠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절변인인 스포츠활동 만족도는 상당히 중요한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포츠활동 만족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더 나아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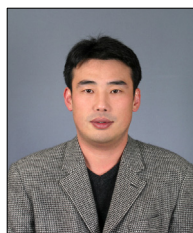
## REFERENCES

- [1] C. H. Lee, "The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on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joining in a youth soccer club."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5.
- [2] B. H. Spitzberg, W. R. Cupach, "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0, pp. 575-599, 1984.
- [3] S-Y. Kim, "The Effects of Abuse Experienc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Communicative Ability on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Graduate school of Myoungji University, 2010.
- [4] H-S. Jang, "The Effects of Interactants Perceive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Relational Outcome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3.
- [5] Y-S. Hwang, J-H. Kim,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n Mobile Phone Uses and Relational Maintenance Behavio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9, No. 3, pp. 687-719, 2009.
- [6] C-M. Koo,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 and sport participation of youth."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Vol. 13, No. 1, pp. 25-36, 2000.
- [7] L. A. Donovan, P. D. MacIntyre, " Age and sex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21, No. 4, pp. 420-427, 2004.
- [8] D. J. Canary, M. J. Cody, V. Manusov,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 goals-based approach." NY: Bedford/St. Martin's Press, 2000.
- [9] M-H. Kwon, "Relationships between Sport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Vol 17, No. 4, pp. 89-99, 2012.
- [10] M-Y. Oh,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2013.
- [11] C-H. Lee, "The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on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joining in a youth soccer club."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5.
- [12] K-H. Min, Y-G. Park, "Influence of body image on the physical self-concept according to dance sports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Vol 16, No. 1, pp. 177-189, 2010.
- [13] H-J. Choi, "(The) effect of peer-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03.
- [14] J-S. Lim, C-H. Yang, "Relationship between Sports Confidence and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Marine Spor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69-176, 2015.
- [15] C-O.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 [16] R. Kwon, "A study on the effect of sports activities of primary school pupils after school in the formation of the positive self-concept."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7.
- [17] E. S. Yi, E. Y. Kang,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ies with Family Memb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Family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6, No. 2, pp. 887-897, 2009
- [18] K. W. Kim, " Effects of physical exercise on physical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4, No. 1, pp. 1-12, 2003.
- [19] K-S. Yoo, "Effect of sport participa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f adolescenc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3.
- [20] D-H. Woo, "A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peer-relation, self-concept and social behaviors of youth soccer player."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09.
- [21] J-P. Choi, "Effects of children's relationship on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youth soccer club activity."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9.
- [22] K.S. Roh, "Thesis statistical analysis: SPSS & AMOS 21." Seoul: Hanbit Academy, 2014.
- [23]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2005.
- [24] N-S. Kim, Y. Min, " The impact of digital media use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port-related activities upon early adolescents' anti-social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Vo. 20, No. 4, pp. 159-187, 2009.
- [25] H. W. Marsh, M. Bar-Eli, S. Zach, G. Richards, " Construct validation of Hebrew versions of three physical self-concept measures: An extended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 28, No. 3, pp. 310-343, 2006.
- [26] A. I. Nathanson, "Parents versus peers: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peer mediation of antisocial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3, pp. 251-274, 2001.
- [27] D. W. Kim, "A satisfaction of women's leisure sport activity."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03.
- [28] J. Chang,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13-219, 2015.
- [29] S.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 p115-122.
- [30] I. Kim, S. Kim, "Converged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education and dental health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07-114.

**김 기 섭(Kim, ki Sup)**



- 1998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교육 전공 (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학 (체육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 중도장애인, 사회성
- E-Mail : kks1166@khu.ac.kr

**장 익 영(Chang, Ik Young)**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체육학사)
- 2009년 11월 : Lakehead University 체육학과 (이학석사)
- 2014년 5월 : University of Otago 체육학과 (철학박사)
- 2014년 5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 이주, 정체성
- E-Mail : ikyoungchang@gmail.com